

2020 나의 지리 사진 이야기 (예시 1)

사진제목	(예시) 부산의 아이들		
이름	박 초 영	학 번	3226
촬영 장소	부산 감천문화마을	촬영 날짜	2019.10.31.



감천 문화 마을은 6.25. 때 피난민들이 힘들게 살았던 곳으로, 아직도 원형 그대로의 마을을 보존한 관광지가 되었다. 산 아래로 수많은 집들이 계단식으로 모여 지어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의 지형은 가파른 형태를 하고 있어 평탄한 주거지가 존재해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렇게 산을 오르듯 가파른 경사에 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허름한 지붕과 다닥 붙어있는 집, 알록달록 칠해놓은 벽면이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6.25.시절을 이겨낸 힘든 피난민들의 생활이 그려지는 듯해서 아이들의 모습이 슬프게 느껴졌다.

2020 나의 자리 사진 이야기 (예시 2)

사진제목	(예시) 강이 만든 조각품		
이 름	박 초 영	학 번	3227
촬영 장소	미국 애리조나주 호스슈 밴드	촬영 날짜	2019.7.31.



말굽 모양으로 생긴 콜로라도 강의 물굽이를 일컫는 호스슈 밴드는 파웰 호수와 그랜드 캐년 댐에서 하류 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 페이지에 위치해있다. 거대한 콜로라도강이 조각한 작품인 호스슈 밴드는 평평한 고원 사이를 수만년 간 굽이쳐 흐르며 이 엄청난 조각품을 완성했다. 300m 높이로 새겨진 호스슈 밴드는 이름처럼 말발굽을 빼닮았다. 콜로라도 강은 협곡의 가장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고요히 흐르며 신비로운 에메랄드 빛을 뿜내며 붉은 사암 바위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돌다 흘러간다.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15분 정도 걸어가면 숨막히는듯한 절경이 펼쳐진다. 이런 위대한 지형을 만들었음에도 조용하고 잔잔하게 자신이 갈 길을 흘러 가는 콜로라도 강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